

아동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 어머니의 취업유무를 중심으로*

Variables Affecting Peer Competence of Young Children :
Focus on Maternal Employment Status*

문혁준(Hyuk Jun Moon)¹⁾

ABSTRACT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the Peer Competence Scale(Park & Rhee, 2001), Infant Temperament Questionnaire(Chun, 1993), Emotional Intelligence Quotient Scale(Kim & Kim, 1998), Maternal Parenting Scale(Park & Lee, 1990) Parental Involvement Checklist(Cohen, 1989), and 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Pianta, 1991). Subjects were 400 preschoolers and their mothers in Seoul.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a) children of employed mothers had higher peer competence than children of unemployed mothers. (b) Closeness in teacher-child relationship was the strongest predictor for peer competence of children of employed mothers; maternal strategies promoting peer relationships was the strongest predictor for peer competence of children of unemployed mothers.

Key Words : 아동(child), 또래유능성(peer competence), 취업모(employed mother), 비취업모(unemployed mother).

I. 서 론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수많은 관계 속에서 성장해간다. 최초의 사회적 관계는 가족 내에서 주 양육자와 시작되지만 점차 형제, 또래 및 다른

성인과의 관계로 확대된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의 가치와 규범 및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나가고 사회적 지원 및 자신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또래와 효율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

* 이 논문은 2008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¹⁾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yuk Jun Moon, College of Human Ec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43-1 Yokkok2-dong, Buchon, Kyonggi-do 420-743, Korea
E-mail : mhyukj@unitel.co.kr

력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종단적 연구(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에서 초기 또래관계가 이후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와 Crick(1996)의 유아기 때 또래와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실패한 유아들은 성장 이후에 비행이나 범죄적 행위 등과 같은 심각한 부적응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결과들은 또래유능성이 유아의 지능과 같은 인지적 능력 못지않게 성공적인 적응이나 성취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Parker & Asher, 1993).

이와 같은 이유에서 아동들이 적절하고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하는 또래유능성은 또래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주도성, 또래에게 민감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친사회성, 여러 아동과 잘 어울리고 또래로부터 잘 수용되는 사교성으로 구분된다(박주희, 2001). 이러한 또래유능성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기질은 생의 초기부터 개인차의 본질이며 타고난 성격의 표상으로 (Campos, Goldsmith, Barret, Lamb, & Stenberg, 1983)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었다. Walker와 그의 동료들(2001)은 기질의 개인차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적응행동과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결과 유아의 기질적 특성이 또래지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Parker-Cohen과 Bell(1988) 또한 또래에게 수용되고 인기가 있는 유아들은 높은 적응성과 활동성을 보이며, 또래에게 수용되지 못하는 유아들은 낮은 적응성과 반응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근래들어, 또래유능성을 설명하는 또 다른 변

인으로 내적 감정 상태 및 정서와 관련된 생리학적 발생, 강도, 지속기간을 조정하는 과정인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Katz & McClellan, 1997).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아동이 친사회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위축된 행동이 빈번히 나타났으며, 성인으로부터 사회적으로 유능하지 못하다고 평가받으며 또래 집단에도 잘 수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Eisenberg, & Fabes, 1992). 국내연구(임연진, 2002)에서도 유아의 정서조절이 친사회적 행동이나 또래유능성을 설명하는 영향력 있는 변인임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이상의 아동 변인과 함께 연구자들은 부모-유아의 관계와 또래상호작용과의 관계를 설명하려 하였으며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영향에 많은 관심을 가져 왔다. 이영과 나유미(1999)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온정적, 애정적, 수용적, 합리적인 양육행동은 또래유능성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반면 MacKinnon-Lewis와 그의 동료들(1999)은 어머니가 통제적이거나 강압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은 또래거부나 부정적 상호작용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더 나아가 어머니들은 일상적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아동의 또래관계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또래관계 관리자로서 놀이 장소와 같은 사회적 환경을 선택하거나 계획하고 놀이친구에 대한 접근을 매개하거나 통제하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감독하는 행동을 한다(Ladd, Profilet, & Hart, 1992).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또래 상호작용을 감독하고(김희진, 1998) 또래 접촉의 기회를 제공하며(송정, 1999) 또래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하는 행위(Laird, Pettit, Mize, & Lindsey, 1994) 등이 또래관계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주는 외적 요인이 부모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가족구조의 변화, 형제수의 감소, 취업모의 증가,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 확대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부모와 접촉하는 시간이 줄어든 반면 유아교육기관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 때문에 유아교육기관내에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교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은화·배소연과 조부경(1995)에 의하면, 교사와 유아 관계는 또래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따뜻하고 친근한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교사와의 관계는 바람직한 또래관계 형성에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조혜진, 2004; 조수연, 1999). 또한 국외의 연구(Pianta & Steingberg, 1992)에서도 교사와의 안정된 관계는 환경에 대한 유아의 적극적 탐색, 긍정적 정서, 다른 사람과의 유능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켜 또래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침이 밝혀졌다.

2007년 9월 현재(통계청, 2008), 6세 미만의 아동 중 약 45%가 취업모의 자녀로 추산되고 있으며, 여성의 취업이 20대부터 40대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50대부터 감소하는 \cap (역-U)자형으로 변하고 있는 등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은 더 이상 소수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인 가족의 생활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취업은 어머니의 외면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태도와 관계의 변화까지 초래하여 아동의 발달적 맥락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어머니의 양육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유아기에 어머니 취업은 급격한 성장을 보이는 자녀의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발달에 주요 변수로써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더 나아가, 취업모들은

양육죄책감을 경험하고 이러한 죄책감은 여유로워진 경제적인 측면으로 양육죄책감을 보상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반해 비취업모에게 양육과 가사는 경제적 부담, 신체적 피로, 자신의 정체감에 대한 불만족, 생활의 부자유스러움 등 심리적 갈등과 부담이 될 수 있다(고성혜, 1994). 따라서 취업에 따른 상이한 환경과 심리적 특성에 의해 취업모 자녀의 또래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비취업모 자녀와 다르게 결정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처럼 높은 취업모 비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아동의 또래유능성 관련 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국내에서 전무한 상황이라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고찰해 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선행 연구들은 다양한 요인들이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인간의 관계성을 탐색해 보는 것에 제한되어 있으며, 또래유능성을 아동, 부모, 교사 변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 시도는 거의 전무하다.

실제로 많은 아동들이 또래관계의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또래관계의 부정적 순환주기를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유아들의 발달적 특성과 학령기에 접어들면 안정화되는 또래관계의 특성을 감안할 때(Ladd & Mize, 1990) 또래유능성에 기여하는 변인을 규명하는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하다고 보여지며, 이를 통해 또래유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또래유능성에 있어 취업모 가정의 아동과 비취업모 가정 아동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아동의 또래유능성과 아동의 기질과 정서조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관계 관리전략, 그리고 교사-유아 관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아동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이며, 그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만 5세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 400명(취업모 200명과 비취업모 200명) 그리고 학급의 담임교사 1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선정을 위해 서울에 위치한 보육시설 6 곳을 임의 선정하였으며, 만 5세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취학 전기부터 또래 상호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또래관계에서의 유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결과(Ladd & Hart, 1992)에 기초했다.

본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유아의 성별은 남아 195명, 여아 205명이었으며, 출생순위는 첫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형제수는 1명이 18.0%이었으며 2명이 60.2%, 3명이 21.8%를 차지하였다. 취업모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4.83세($SD=3.83$), 비취업모 어머니의 경우 32.53세($SD=3.25$)이었으며, 취업모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30.2%, 전문대졸32.5%, 대졸 이상 37.3%이었으며, 비취업모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32.3%, 전문대졸 34.4%, 대졸이상 33.3%이었다. 담임 교사의 연령은 30대, 경력은 5년 이상, 학력은 대졸이상인 자로 제한하여 선정하였다.

2. 연구도구

1) 또래유능성

유아의 또래유능성은 박주희와 이은혜(2001)가 개발한 또래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주도성, 친사회성, 사교성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도성은 또래집단에서 활동이나 놀이를 능동적으로 제안하고 이끌며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친사회성은 다른 유아를 잘 도와주고 사이좋게 지내며, 갈등이 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사교성은 또래 집단에 잘 수용되며, 여러 아이들과 고루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각 문항을 Likert식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래관계에서 유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래유능성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주도성 .75, 친사회성 .77, 사교성 .82 이었다.

2) 기질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는 도구로 Thomas와 Chess(1977)에 의해 개발된 학령 전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는 어머니 질문지인 Revised Infant Temperament Questionnaire를 토대로 친희영(1993)이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기질 구성차원으로 밝혀진 4개 영역(활동성, 반응성, 생리적 규칙성, 적응성)의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영역에 대한 높은 점수의 의미는 활동성의 경우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함을, 반응성은 약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그리고 강하게 반응함을, 생리적 규칙성은 수면이나 식사에 관련된 주기가 규칙적임을, 적응성은 새로운 자극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 반응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활동성 .68, 반응성, .69, 생리적 규칙성 .65, 적응성 .86이었다.

3) 자기정서조절

유아 자신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경희와 김경희(1998)가 개발한 ‘유아 정서지능 평정 척도’ 중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영역을 사용하였다. 이 영역은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인내심과 절제로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으로 다른 정서지능 영역에 비해 또래유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선행연구(Hubbard & Coie, 1994)에 기초하여 채택되었다.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는 8문항으로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70이었다.

4)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박성연과 이숙(1990)이 개발한 척도로 5개 하위요인(애정, 합리적 지도,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적극적 참여)의 총 35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평정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애정적이며 합리적인 지도를 하고 권위주의적 통제와 과보호를 하며 적극적 참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애정 .87, 합리적 지도 .87, 권위주의적 통제 .74, 과보호 .73, 적극적 참여 .76이었다.

5) 또래관계 관리전략

어머니가 유아의 또래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자주 하는지 측정하기 위하여 Cohen(1989)의 Parental Involvement Checklist를 번안·수정하여 사용한 박주희(2001)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6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또래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였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94이었다.

6) 긍정적 교사-유아 관계

Pianta(1991)가 제작한 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을 이진숙(2001)이 번안한 질문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유아 관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97이었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서울시에 소재하는 보육시설의 만 5세 유아 20명과 어머니 20명, 그리고 해당 담임교사 2명을 대상으로 2008년 4월 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서울시에 위치한 여섯 곳의 보육시설을 통해 해당 유아 편에 가정통신문과 함께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또래관계 관리전략 설문지를 전달하였으며, 설문지가 회수된 유아를 대상으로 또래유능성, 정서조절, 교사-유아 관계에 대해 교사 평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Pearson의 상관계수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 과

1. 취업모와 비취업모 아동의 또래유능성

취업모와 비취업모 아동의 또래유능성을 살펴

<표 1> 취업모와 비취업모 아동의 또래유능성 비교

	취업모 아동		비취업모 아동		t값
	M	SD	M	SD	
주도성	3.50	.72	3.33	.73	2.36*
친사회성	3.55	.72	3.41	.72	2.14*
사교성	3.55	.75	3.38	.69	2.26*
또래유능성(전체)	53.05	9.76	50.62	10.07	2.52*

* $p < .05$

보면 <표 1>과 같다. 취업모 아동의 경우 평균이 53.05($SD=9.76$)로 나타나 비취업모 아동의 평균 50.02($SD=10.07$)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52, p<.05$). 각 하위영역별로 보면, 주도성(취업모 : $M=3.50, SD=.72$; 비취업모 : $M=3.33, SD=.73, t=2.36, p<.05$), 친사회성(취업모 : $M=3.55, SD=.72$; 비취업모 : $M=3.41, SD=.72, t=2.14, p<.05$), 사교성(취업모 : $M=3.55, SD=.75$; 비취업모 : $M=3.38, SD=.69, t=2.26, p<.05$) 모두에서 취업모 아동이 비취업모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2. 또래유능성과 변인과의 관계

또래유능성과 아동 변인, 어머니 변인, 교사 변인과의 상관관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취업모 아동의 또래유능성은 아동 변인에서 반응성($r=.18, p<.01$), 생리적 규칙성($r=.45, p<.001$), 적응성($r=.23, p<.001$), 정서조절($r=.71, p<.001$), 어머니 변인에서 애정($r=.60, p<.001$), 합리($r=.55, p<.001$), 권위주의적 통제($r=-.68, p<.001$), 과보호($r=-.62, p<.001$), 적극적 참여($r=.47, p<.001$), 또래관계 관리전략($r=.73, p<.001$), 그리고 교사 변인에서 교사-유아관계($r=.73, p<.001$)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기질에서 반응성, 규칙성, 적응성이 높고, 정서조절력이 높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정/합

<표 2> 취업모와 비취업모 아동의 또래유능성

구 분	또래유능성	
	취업모 아동	비취업모 아동
기질(아동)		
활동성	-.10	-.27***
반응성	.18**	.02
생리적 규칙성	.45***	.44***
적응성	.23***	.19**
정서조절(아동)	.71***	.66***
양육행동(어머니)		
애정	.60***	.51***
합리	.55***	.53***
권위주의적 통제	-.68***	-.71***
과보호	-.62***	-.57***
적극적 참여	.47***	.35***
또래관계관리 전략(어머니)	.73***	.80***
교사-유아 관계(교사)	.73***	.78***

** $p < .01$ *** $p < .001$

리적이며 권위주의적 통제와 과보호적 행동이 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어머니의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높고 교사-유아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취업모 아동의 또래유능성은 높다는 것이다.

둘째, 비취업모 아동의 또래유능성은 아동 변인에서 활동성($r=-.27, p<.001$), 생리적 규칙성($r=.44, p<.001$), 적응성($r=.19, p<.01$), 정서조절($r=.66, p<.001$), 어머니 변인에서 애정($r=.51, p<.001$), 합리($r=.53, p<.001$), 권위주의적 통제($r=-.71, p<.001$), 과보호($r=-.57, p<.001$), 적극적 참여($r=.35, p<.001$), 또래관계 관리전략($r=.80, p<.001$), 그리고 교사 변인에서 교사-유아관계($r=.78, p<.001$)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기질에서 활동성이 낮고 규칙성과 적응성이 높으며, 정서조절력이 높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정/합리적이며 권위주의적 통제와 과보호적 행동이 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어머니의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높고 교사-유

아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비취업모 아동의 또래 유능성은 높다는 것이다.

3. 또래유능성에 대한 영향력

또래유능성에 대한 영향력이 큰 변인들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독립변인들간에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다. 회귀분석의 독립변인은 아동 변인, 어머니 변인, 교사 변인을 투입하여 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첫째, 취업모 아동의 또래유능성은 아동 변인 중 생리적 규칙성($\beta=.08, p<.05$), 정서조절($\beta=.21, p<.001$), 어머니 변인 중 권위주의적 통제($\beta=-.19, p<.001$), 과보호($\beta=-.17, p<.001$), 또래관계 관리 전략($\beta=.27, p<.001$), 교사 변인 중 교사-유아 관계($\beta=.30, p<.001$)가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 설명력은 84%였다. 즉, 아동이 규칙성과 정서조절력이 높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권위주의적 통제가 적고 과보호적이지 않으며,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높고 교사-유아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취업모 아동의 또래유능성은 높았음을 의미한다.

둘째, 비취업모 아동의 또래유능성은 아동 변인 중 정서조절($\beta=.15, p<.01$), 어머니 변인 중 권위주의적 통제($\beta=-.20, p<.001$)와 또래관계 관리전략($\beta=.38, p<.001$), 교사 변인 중 교사-유아 관계($\beta=.29, p<.001$)가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 설명력은 83%였다. 즉, 아동의 정서조절력이 높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권위주의적 통제가 적고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높고 교사-유아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비취업모 아동의 또래유능성은 높았음을 의미한다.

<표 3> 취업모와 비취업모 아동의 또래유능성에 대한 영향력

구 분	또래유능성	
	취업모 아동	비취업모 아동
	β	β
기질(아동)		
활동성	.03	-.01
반응성	.01	-.01
생리적 규칙성	.08*	.07
적응성	.04	-.00
정서조절(아동)	.21***	.15**
양육행동(어머니)		
애정	.03	-.01
합리	-.01	.01
권위주의적 통제	-.19***	-.20**
과보호	-.17***	-.07
적극적 참여	.01	-.03
또래관계관리 전략(어머니)	.27***	.38***
교사-유아 관계(교사)	.30***	.29***
$F_{값}$	114.61***	64.36***
R^2	.84	.83

* $p<.05$ ** $p<.01$ ***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의 주요 발달과제 중 하나는 또래관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유능성에 관련되는 아동, 부모, 교사 요인을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 자녀의 또래유능성이 비취업모 자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자녀의 독립심을 더 강조하고 자녀를 보다 엄격하고 일관된 방식으

로 양육했으며(Gold, 1978), 취업모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는 비취업모의 경우 덜 긍정적인 양육태도(방경숙, 2004)와 더 갈등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노현정, 2004)으로 밝혀진 결과들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Crouter(1984)는 취업모의 경우 직장에서의 얻은 관리기술이 효율적인 자녀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Greenberger과 그의 동료들은(1989)은 직장 동료들간의 비공식적인 우정과 아동양육에 대해 충고나 준거기준이 필요한 부모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환경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취업모가 가지는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기성취능력, 자기통제능력, 자존감 등을 향상시키고, 자녀의 높은 활동성과 자기효능감 및 평등주의적 성역할 개념을 향상시켜(조복희, 1995) 또래유능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취업에 만족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더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전문직 종사자가 서비스직 종사자보다 그러한 경향이 더 강했다는 김윤숙(1989)의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추후 연구에서는 취업변수로 취업유무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취업동기, 취업만족도 그리고 취업유형 및 근무조건 등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상관분석에서 취업모와 비취업 자녀 모두 아동 변인에서 생리적으로 규칙적이며, 적응성이 높고 정서조절이 높을수록 아동의 또래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기질 중 생리적 규칙성은 사회적 활동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김옥희, 2007), 적응성은 사교성과 관계가 있다는 결과(홍계옥, 2001)들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또한 인기아들이 무시 또는 거부아들에 비해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

는데(Golman, 1995) 반해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유아는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진 선행연구(Kupersmidt & Dodge, 200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위영희(2004)는 감정조절이나 충동 억제를 잘 할수록 유아의 친사회성이 높게 나타나며 이는 또래유능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취업모 아동의 경우 기질 중 반응성이 비취업모 아동의 경우 활동성이 또래유능성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보통 부정적 상황에 기분 좋게 반응하고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아일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친밀하며(김수옥, 2002), 활동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그 유아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아 교사와 유아 간 애착 안정성이 낮게 나타난 결과(신경숙, 2002)에서 일반적인 원인은 유추해볼 수 있으나 이 변인들이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어떤 맥락에서 관계가 있는지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어머니 변인에서 취업모와 비취업 자녀 모두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이며 합리적이고 권위적인 통제와 과보호적 행동이 적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높을수록 아동의 또래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온정적이고 반응적이며 적절한 통제를 가하는 부모는 아동의 자신감과 안정감을 강화시켜 주며, 합리적인 지도는 의사소통 능력과 남의 말을 경청하는 능력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탈중심화를 촉진시켜 사회적 관계를 원만히 형성·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Putallaz & Heflin, 1999). 이에 반해 어머니가 통제를 많이 한다고 지각하는 유아가 자기유능감을 낮게 지각하며

(최영희, 2004), 힘에 의존하는 부모양육방법과 과잉보호 혹은 과잉제재를 가하는 부모의 경우 자녀를 수줍고 위축되며 의존적인 아동으로 만든다는 선행연구결과(LaFreniere & Dumas, 1992)에서 낮은 또래유능성의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출산을 저하로 인한 자녀수의 감소와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기대가 부모의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Hurlock(1978)은 부모의 과보호는 유아로 하여금 과도한 의존, 자신감의 결핍 및 욕구 불만 같은 것을 갖게 하기 쉽다고 하였고 Rubin(1995)은 과보호가 유아의 위축행동을 조장한다고 보았으며 그 결과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낮은 또래지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문혁준, 2000).

또한 어머니의 또래관계 관리전략과 아동의 또래유능성과의 밀접한 관련성은 어머니가 제공하는 또래 접촉기회 또는 상호작용 및 갈등 해결 기술 등에 대한 감독 및 조언은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Bhavnagri & Parke, 1991; Ladd & Hart, 1992)와 일치하는 것으로 친구들과의 놀이 기회를 통해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의 배려가 절실히 요구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넷째, 교사 변인에서는 교사-유아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아동의 또래유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 보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유아일수록 안정된 사회성을 보이며 또래관계에서도 안정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여연승(2003)은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유아는 안정적이고 협조성이 높은 사회적 유능감을 보였으며 구선라(1999)는 유아가 교사와 친근감이 높을 때 유아행동에서 친사회성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다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취업모 아동의 또래유능성의 경우 아동 변인 중 생리적 규칙성과 정서조절, 어머니 변인 중 권위적 통제와 과보호적 양육태도, 또래관계 관리전략, 교사 변인 중 교사-유아 관계이었으며,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긍정적 교사-유아 관계이었다. 비취업모 자녀의 또래유능성의 경우 아동 변인 중 정서조절, 어머니 변인 중 또래관계 관리전략, 교사 변인 중 교사-유아 관계이었으며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어머니의 또래관계 관리전략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생리적으로 규칙적이며 정서조절력이 뛰어난 아동은 평소 성인과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성인과의 긍정적 관계 경험으로 인하여 또래와 같은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 유능하게 행동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결과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 요소 중 취업모의 경우 양육행동 중 과보호가 주요 변인으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이는 김경미(2003)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으며 취업모들이 비취업모보다 유아와 잦은 분리경험을 가짐으로써 유아에 대한 염려로 인해 분리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는(김미경·김연화·한세영, 2008)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에게 대인관계 행동의 모델로 기능할 수 있으며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기초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표상을 발달시킬 수 있다(Putallaz & Heflin, 1990)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 다른 주목할 점으로 또래관계 관리전략에 대한 변인이다. 즉 부모가 아동에게 또래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또래유능성의 발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또래에

대한 조언 등을 통해 또래의 관점을 이해하고 또래관계에서의 갈등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문제해결 기술을 길러줄 수 있다. 한편 취업모들이 비취업모들에 비해 자녀가 또래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거나 상호작용을 간접적으로 감독하는 행동을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밝혀져(박주희, 2001) 취업모는 자녀의 또래관계 관리 전략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유아와 교사간에 긍정적 관계는 유아 교육기관 생활을 더욱 안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울 수 있는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공유함으로써 유아는 주변 환경을 좀 더 잘 탐색할 수 있는 안정 기저를 가지게 되고 이는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교사-유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유아의 교육기관의 적응(Pianta, 1994), 또래와의 관계(Howes, Matheson, & Hamilton, 1994) 그리고 또래관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전경아, 2003) 등과 관계됨을 밝히고 있으며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특히 또래유능성에 있어 취업모의 경우 아동이나 어머니 변인에 비해 교사와의 관계가 더 강력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취업모에게 있어 제2의 애착 대상으로 유아 교사가 지니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또래유능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타고난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그리고 교사-유아와의 관계 모두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동의 또래유능성이 교사의 적절한 관심과 배려로 강화될 수 있으므로 또래관계가 형성되는 유아기에 거부 또는 무

시받는 아동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또래관계 형성에 있어 교사의 중재는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임의 표집에 의해 선정된 특정지역의 보육시설에서 선정된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기울여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각 변인들을 평가하는데 있어 다중적 자료원과 방법이 병행되지 못하고 질문지법을 통해 어머니와 교사 1인의 보고에 의존한 점과 종단적 연구가 아니라는 한계를 가진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질이 아닌 양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었으며 양육행동과 관계되는 인지적 요인인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을 주요 변수로 살펴볼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의 또래유능성의 향상을 위해 어머니의 취업 요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었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며, 향후 아동의 또래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들을 중재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고성혜(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 21-37.
- 구선라(1999). 연령과 성별에 따른 교사-유아 관계와 유아 행동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미(2003).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관련된 어머니와 아동의 특성.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희 · 김경희(1998).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1(2), 31-48.
- 김미경 · 김연화 · 한세영(2008). 어머니와 유아의 분리불안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7), 71-84.
- 김수옥(2002). 유아의 기질과 사회인지에 따른 교사-유아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옥희(2007).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정서 반응성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희진(1998). 어머니의 인지, 어머니의 지도/감독행동, 그리고 유아의 또래간 유능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1), 45-53.
- 문혁준(2000). 또래수용도와 부모 양육태도 : 인기와 고립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7), 39-52.
- 박성연 · 이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박주희(2001). 아동의 또래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 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박주희 · 이은혜(2001). 취학 전 아동용 또래 유능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 221-232.
- 방경숙(2004).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양육태도, 양육부담감 및 학령전기 자녀의 기질과 건강관련 변인 비교. *이동간호학회지*, 10(2), 217-224.
- 손승희(2002).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능력과 또래유능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송 정(1999).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인지, 개입행동과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신경숙(2002). 유아의 기질에 따른 사회적 기술과 교사-유아 관계.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여연승(2003). 교사-유아 관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또래수용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위영희(2004). 유아의 정서능력과 또래유능성. *교육발전*, 23(1), 137-158.
- 이영 · 나유미(1999). 유아의 애착 및 어머니-유아 상호작용과 또래 상호작용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19-32.
- 이은화 · 배소연 · 조부경(1995). 유아교사론. 양서원.
- 이진숙(2001). 유아의 애착표상과 교사-유아 관계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임연진(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 113-124.
- 전경아(2003). 유아의 또래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가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조복희(1995). *이동발달의 이해*. 교육과학사.
- 조수연(1999).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조혜진(2004). 유아의 사회 · 정서발달에 미치는 가족 특성, 보육경험 및 기질 변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통계청(2008). *통계연보*.
- 천희영(1993).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14(2), 17-34.
- 최영희(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다중 지능과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홍계옥(2001). 어머니의 자기-지각, 양육행동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22(2), 181-194.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havnagri, N., & Parke, R. D. (1991). Parents as direct facilitators of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 Effect of age of child and sex of parent. *Journal of*

- Personal and Social Relationships*, 8, 541-549.
- Campos, J. J., Goldsmith, H. H., Barret, K. C., Lamb, M. E., & Stenbery, C. (1983). *Socioemotional development*. NY : Wiley.
- Crick, N. R. (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2317-2327.
- Crouter, A. C. (1984). Participative work as an influence on human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5, 71-90.
- Dékovic, M., & Janssens, J. M. A. M. (1992).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925-932.
- Eisenberg, N., & Fabes, R. A. (1992). Emotion 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M. S. Clark(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Vol.14). Newbury Park, CA : Sage.
- Gold, M. (1978). Maternal confidence during toddlerhood : Comparing pattern and fullterm group.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2, 1-9.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Y : Bantam Books.
- Greenberger, E., Goldberg, W. A., Hamill, S., O'Neil, R., & Payne, C. K. (1989). Contributions of a supportive work environment to parent's wellbeing and orientation to work.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7, 755-783.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 In E. 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4). NY : Wiley.
- Howes, C. (1997). Teacher sensitivity, children's attachment and play with peer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8(1), 41-50.
- Howes, C., Matheson, C. C., & Hamilton, C. E. (1994). Maternal, teacher, and child care history correlates of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peer. *Child Development*, 65, 264-273.
- Howes, C., Phillips, D. A., & Whitebook, M. (1992). Thresholds of quality : Implications for the 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in center-based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63, 449-460.
- Hurlock, E. B. (1978). *Child development*. NY : McGraw-Hall.
- Katz, L. G., & McClellan, D. E. (1997). *Fosteri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 The teacher's role*. Vol. 8. NAEYC Research into Practice Series.
- Kupersmidt, J. B., & Dodge, K. A. (2004). *Children's peer relations : From development to interventi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 Ladd, G. W., & Hart, C. H. (1992). Creating informal play opportunities : Are parents' and preschoolers' initiations related to children's competence with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179-1187.
- Ladd, G. W., Profilet, S. M., & Hart, C. H. (1992). Parents' management of children's peer relations : Facilitating and supervising children's activities in the peer culture. In R. D. Parke & G. W. Ladd(eds.), *Family-peer relationships : Modes of linkage*(pp.215-253).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aird, R. D., Pettit, G. S., Mize, J., & Lindsey, E. (1994). Mother-Child conversations about peers : Contributions to competence. *Family Relations*, 43, 425-432.
- Mackinnon-Lewis, C., Rabiner, D., & Starnes, R. (1999). Predicting boys' social acceptance and aggression : The role of mother-child interactions and boys' beliefs about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35, 632-639.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r childhood : Link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621.
- Parker-Cohen, N. Y., & Bell, R. Q. (1988). The

-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social adjustment to peer.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179-192.
- Pianta, R. C. (1991). The 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 Unpublished paper. University of Virginia, Charlottesville, VA.
- Pianta (1994). Patterns of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 and kindergarten teacher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2(1), 15-31.
- Pianta, R. C., & Steinberg, M. (1992).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the process of adjustment to school.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57, 61-80.
- Putallaz, M., & Heflin, A. H. (1990). Parent-child interaction.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189-216). N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bin, K. H. (1995). Parents' thoughts about children's socially adaptive and maladaptive behaviors : Stability, change,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I. E. Sigel, A. V. McGillicuddy-DeLisi, & J. J. Goodnow(eds.), *Parental belief systems :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pp.47-69).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Thomas, A., & Chess, S. (199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 Brunner/Mazel.
- Walker, M., Berthelsen, D., & Irving, K. (2001). Temperament and peer acceptance in early childhood : Sex and social status differences. *Child Study Journal*, 31(3), 177-192.

2008년 12월 30일 투고, 2009년 2월 20일 수정
2009년 3월 13일 채택